

미국과 두 개의 중국

- 냉전 시기 자유민주주의가 낳은 두 개의 국가론 -

김일년*

국문요약

이 논문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어진 초기 냉전 시기 동안 솔레진저, 겔브레이스, 볼즈 등 미국 민주당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진보적으로 재해석하여 그것을 동아시아의 냉전에 적용하는 양상을 추적한다. 흔히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반공의 이념 정도로 인식되었던 미국의 냉전 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는 이 시기 반공 좌파를 자처했던 인물들의 손을 거쳐 사뭇 진보적인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재해석된 자유주의를 동아시아의 냉전에 적용했을 때,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익숙한 소련 공산주의가 아니라 낯선 중국 공산주의를 마주했다. 그들은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했고, 따라서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해법을 구상해야 했다. 그 결과 중국 문제에 대한 두 국가 해법, 즉 두 개의 중국 정책(two China policy)이 탄생했다. 휴전선과 베를린 장벽, 요르단강, 대만 해협이 어제와 오늘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두 개의 국가는 서로 쉽게 조응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냉전 초기 미국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에게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주제어: 자유주의, 민주주의, 두 개의 중국, 솔레진저, 겔브레이스, 볼즈, 두 개의 국가, 반공주의

*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조교수, ininkim@ewha.ac.kr

I. 서론

1960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막바지로 치달았다. 선거는 박빙의 구도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먼저 유리한 고지에 올라선 쪽은 민주당이었다. 지금까지도 미국 선거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기억되는 9월 말 TV 토론에서, 민주당의 매력적인 젊은 후보 존 F. 케네디(John F. Kennedy)는 유려한 말솜씨와 넘치는 자신감으로 화면 너머 유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TV 토론 직후 케네디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발표되었다. 제대로 한 방 먹은 공화당 후보 리처드 닉슨(Richard Nixon)은 이제 반격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는 서둘러 남부 유세 일정을 잡았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보수파가 가진 필승의 카드를 꺼냈다. 바로 색깔론이었다. 버지니아부터 조지아와 플로리다를 거쳐 루이지애나까지 이어지는 유세를 통해 닉슨은 민주당의 진보파, 즉 리버럴들(liberals)이 경험이 부족한 케네디를 꼭두각시로 내세워 미국을 사회주의의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고 경고했다. 이때 그는 세 명의 “극단적(extremist)” 진보 인사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결코 케네디의 당이 아닙니다. 닉슨이 외쳤다. 오늘날 민주당은 “슐레진저와 갤브레이스, 볼즈의 정당(the party of Schlesinger, Galbraith, and Bowles)”이 되었습니다(Weaver, 1960, 1; Gellman, 2022).

이 글은 “슐레진저와 갤브레이스, 볼즈의 정당”이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을 어떤 각도에서 이해하고, 또 어떠한 해법을 제시했는지 분석한다. 닉슨이 이 세 사람의 자유주의자를 거론한 이유는 외교나 안보가 아니라 민주당의 국내 정책을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하버드의 역사학자 아서 Schlesinger Jr.는 뉴딜의 대변인이었고, 마찬가지로 하버드 교수였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는 노동권과 복지국가의 전문가였으며, 코네티컷 하원의원 체스터 볼즈(Chester Bowles)는 흑인 민권운동의 강력한 지원자였다. 하지만 닉슨의 목적과는 별개로 이들이 정작 케네디 시기 미국 정치에 더 큰 흔적을 남긴 분야는 냉전 정책이었다. 물론 이들은 국내에서도 진보적 정책을 옹호했으나, 경제와 민권, 노동, 복지 등의 영역에서 케네디의 노선은 현상 유지에 가까웠으며, 다른 민주당 행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다(Bryant 2006; Kazin, 2017). 갈 곳 잃은 민주당 진보파는 나라 밖으로 눈을 돌렸다. 백악관 대외

정책 보좌관 술레진저, 인도 대사 갤브레이스, 국무차관 볼즈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땅이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동아시아였다.

이 논문의 주장은 간명하다.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미국의 베트남 전쟁 개입까지 이어지는 20년의 기간 동안, 술레진저, 갤브레이스, 볼즈 등 민주당 인사들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진보적으로 재해석하여 그것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동아시아의 냉전에 적용했다. 논의의 출발점은 미국의 냉전 자유주의(Cold War liberalism)를 지금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흔히 자본주의를 정당화하는 반공의 이념 정도로 인식되었던 자유주의는 이 시기 반공 좌파(non-communist left)를 자처했던 인물들의 손을 거쳐 사뭇 진보적인, 심지어 어떤 측면에서는 급진적인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이에 대한 비판은 Moyn 2023 참조). 그렇게 재해석된 자유주의를 동아시아의 냉전에 적용했을 때 복잡한 양상이 펼쳐졌다. 그곳에서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익숙한 소련 공산주의가 아니라 낯선 중국 공산주의를 마주했다. 이에 그들은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에 봉착했고, 따라서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해법을 구상해야 했다. 그 결과 중국 문제에 대한 두 국가 해법, 즉 두 개의 중국 정책(two China policy)이 탄생했다. 휴전선과 베를린 장벽, 요르단강, 대만 해협. 어제와 오늘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두 개의 국가는 서로 쉽게 조율하는 개념이 아니다. 그러나 냉전 초기 미국의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에게 그것은 동전의 양면이었다.

II. 생동하는 중심

냉전, 즉 차가운 전쟁(Cold War)은 기만적이면서 모순적인 개념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특히 최근 한 역사가가 “냉전의 살육장(Cold War’s killing fields)”이라고 부른 아시아 주변부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뜨거운 전쟁과 막대한 희생자를 감춘다는 점에서 기만적이다(체임벌린 2023). 동시에 냉전은 싸우지 않으면서 싸워야 하는, 혹은 한반도나 다른 어딘가에서는 실제로 싸우면서도 그래도 서로 진짜 싸우지는 않는 척을 해야 했다는 점에서 모순적이다. 이 모순은 미국과 소련 두 초강대국 모두가 이름 모를 저 먼 곳에서 터진 반란과 내전, 대리전에 개입한 뒤, 그렇게 문

은 피를 모른 척 외면하도록 도와주었다. 국내로 눈을 돌려 보면, 독재국가인 소련에서 냉전의 모순은 사회를 더욱 억압적으로 만들었다. 무엇이 승리고 무엇이 패배인지 불확실했으니, 사회를 철저히 통제해 출구 없는 이 이상한 전쟁에 모두가 영원히 대비해야 했다. 당대 서방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체제를 가리켜 전체주의(totalitarianism)라고 불렀다(Gleason, 1995). 반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냉전의 모순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정부는 전쟁이 아닌 것을 전쟁이라고 우기고, 전쟁을 전쟁이 아니라고 우겼다. 그래서 어떤 이는 전쟁을 왜 하냐고 정부를 비판했고, 다른 이는 전쟁을 왜 안 하냐고 비판했다(Westad 2017).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때가 되면 선거가 열린다. 1948년 미국 대선이 시작되었을 때, 사방에서 현직 대통령 해리 트루먼(Harry S. Truman)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공화당은 뉴딜부터 이어진 민주당의 친노동 복지 정책을 공격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남부 출신 인사들은 트루먼의 민권 친화적 행보를 규탄하며 남부민주당(States' Right Party, 일명 Dixiecrat)을 창당해 독자 대선후보를 냈다. 국내 정치만큼이나 첨예했던 사안은 냉전이었다. 1947년 3월, 트루먼은 “전체주의 위협에 맞선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냉전의 시작을 알렸다. 트루먼 독트린은 가뜩이나 분열하던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루스벨트(Franklin Roosevelt, FDR) 행정부에서 농무부 장관과 부통령을 지냈던 헨리 월러스(Henry Wallace)는 소련과의 평화를 외치며 민주당을 탈당해 진보당(Progressive Party) 후보로 대선에 독자 출마했다. 트루먼은 딜레마에 빠졌다. 냉전의 긴급성을 강조하자니 진보 유권자들이 월러스로 넘어갈 것 같았고, 그렇다고 소련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여 진보당 표를 빼앗아 오려니 공화당에서 연일 공산주의에 물렁하게(soft) 대처한다고 몰아세웠다(Crespino 2012; Devine 2013).

사면초가에 빠진 트루먼에게 구원의 손길은 당시 반공 좌파로 불렸던 세력으로부터 나왔다.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기 직전인 1947년 1월, 노동계와 민권 진영, 민주당 출신 진보 인사 130여 명이 모여 정치압력단체 미국민주행동(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ADA를 결성했다. 이 단체의 정강에서 단체협약, 최저임금, 공교육, 공공주택, 건강보험 등은 뉴딜의 연장 이었고, 흑인 민권의 옹호는 뉴딜의 극복이었으며, “전체주의에 대한 반대”는 뉴딜과 별개의 새로운 것이었다(Gillon 1987). 대선이 한창이던 1948년

6월, ADA 회원이자 백악관의 젊은 보좌관 클락 클리포드(Clark Clifford)는 트루먼에게 전략을 하나 제안했다. 냉전에 관해서는 일단 침묵하시고 대신 국내 정책에서 개혁성을 부각하기 위해 공화당에 공격을 집중하십시오. 월러스든 다른 누구든 신경 쓸 것 없이, 지난 20년간 뉴딜을 지탱했던 집토끼 진보 유권자를 다시 규합해 승리를 거두라는 의미였다. 트루먼은 구미에도 맞고, 듣기에도 그럴듯한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흑인 민권과 국민건강보험, 복지 확충 등을 명시한 그의 대선공약은 역대 그 어떤 민주당 공약보다 진보적이었으며, “월스트리트 반동분자”와 “공화당 특권층 나리”를 겨냥한 그의 유세는 사회주의자들마저 놀라게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트루먼이 이겼다(Busch 2012).

대역전극으로 시작된 트루먼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선거는 짧고 임기는 길었기에 언제까지나 냉전에 관해 침묵할 수는 없었다. 마셜 플랜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상징되는 트루먼의 냉전 정책은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효과적으로 봉쇄했으며,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았다. 문제는 아시아에서 터졌다. NATO가 결성된 지 불과 6개월 후인 1949년 10월, 중국 공산당은 내전의 승리와 중화인민공화국(PRC)의 성립을 선언했다. 냉전의 모순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한 해 전 월러스의 지지자들이 냉전에 대해 전쟁을 왜 하나고 비판했다면, 이번에는 반대편에서 전쟁을 왜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공화당은 집권 민주당에게 “중국의 상실(loss of China)”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트루먼은 그러면 원래는 중국이 우리 것이었냐고 농치며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으나 통할 리가 없었다. 무명의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리처드 닉슨은 트루먼의 미지근하기 짝이 없는 “비겁한 봉쇄정책”을 공격했다. 일약 스타가 된 그는 이듬해 바로 상원에 입성하게 되었다. 1950년 2월, 위스콘신 상원의원 조지프 매카시(Joseph McCarthy)는 어디선가 정부에 침투한 공산당 간첩 명단을 입수했다고 주장하며 “우리 내부의 적”을 척결하자고 외쳤다. 중국 공산화 직전까지 별 볼 일 없었던 한 기회주의자의 이름이 시사용어 사전에 영원히 등재되던 순간이었다(Oshinsky 1983; Storrs 2012).

이러한 상황에서 트루먼을 지원해 진보적 개혁(Fair Deal)을 추진하고 있던 민주당 안팎의 반공 좌파 세력은 냉전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를 느꼈다. 하버드 사학과 교수이자 ADA의 공동 창립자였던 슬레진저가 이 과업을

떠맡고 나섰다. 1949년 출간된 그의 『생동하는 중심(The Vital Center)』은 흔히 냉전 자유주의의 대표작이자 미국 반공 좌파의 선언서로 꼽힌다. 이 책은 제목이 곧 주장이었다. “생동하는 중심”에서 중심이란 곧 반(反)전체주의, 다시 말해 반공만이 아니라 좌파의 공산주의 독재와 우파의 “파시즘” 독재 모두에 맞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했다. 따라서 미국이 진정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고자 한다면 스페인의 프랑코(Francisco Franco)와 같은 우파 독재 정권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좌우파 전체주의 사이에서 중심만 지킨다고 능사는 아니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피해 아무 생각 없이 중간길만 걸으면 “죽은 중심(dead center)”으로 향할 뿐이었다. 그 중심이 “생동하기(vital)” 위해서는 하나의 장애물을 더 피해야 했다. 그것은 구속받지 않는 자본주의, 술레진저의 표현을 빌리자면 “무책임한 금권정치의 압제”였다. “전체주의의 심연”과 “자본주의의 정글,” 이 두 죽음의 길 사이에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활로가 놓여 있었다(Schlesinger 1949, 153-154; Alpers 2003).

흔히 간과되는 사실이지만 『생동하는 중심』에서 동아시아의 냉전은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 내전의 막바지에 집필되고, 공산중국이 수립되던 해에 출판된 냉전에 관한 책이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일지도 모른다. 동아시아의 냉전과 관련해 이 책이 무엇보다 강조했다던 것은 “사회혁명(social revolution)”이라는 개념이었다. 이는 전체주의 반대와 자본주의 개혁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양대 과제를 한꺼번에 관통한다. 술레진저에 따르면, 미국의 냉전 정책은 유럽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시아에서는 “지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당시 아시아에는 서양 제국주의가 남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라는 이중을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회혁명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다. 문제는 이때 미국이 반공이라는 편의주의를 위해 반전체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점이었다. 특히 중국에서 미국은 국민당 독재를 옹호하며 “외세의 압제를 토종 압제로 대체”하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진실하고 용감하게” 토지 재분배와 인종 평등, 농민 생활 개선을 부르짖는 동안 미국은 지주와 자본가 편만 들어왔다. 이것이 중국이 공산화된 이유요, 아시아의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미국이 공산주의의 도전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이었다(Schlesinger 1949, 223-232).

따라서 중국과 다른 “혁명의 아시아(revolutionary Asia)”에서 미국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는 그곳에서 사회혁명을 이끌고 나갈 민주적 친미 세력을 양성하는 일, 다시 말해 아시아의 “생동하는 중심”을 세우는 일이었다. 그 첫걸음은 장제스의 국민당 독재 정권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슐레진저의 손위 동서이자 ADA 회원이었던 중국사 학자 존 K. 페어뱅크(John King Fairbank)는 중국 내전 막바지에 국민당이 이미 부패한 관료, 이기적 자본가, 그리고 비밀경찰로 구성된 “초기 파시스트(proto-Fascist)” 세력이라고 정의했다(Fairbank 1949, 3-8). 명색이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미국이 친구로 삼기는 부끄러운 무리였다. 다음 단계는 파시스트 국민당과 레닌주의 공산당 모두를 대체할 민주적 대안을 찾는 일이었다. 이때 슐레진저는 그 대안이 꼭 자유주의를 걸어로 표방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했다. 이를테면, 영국에서 그러한 민주적 대안은 노동당이었고, 서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었으며, 인도에서는 탈식민 민족주의자들이었다. 일본의 사례처럼 말만 통한다면 보수주의자들이 대안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미국 자유주의자들은 그들의 이상에 맞는 동지, 중국에서 전체주의에 반대해 사회혁명을 추진해 나갈 동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Ⅲ. 제3의 세력

독재 체제에서 감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공간이다. 전두환의 신군부 정권 아래 한국의 상황이 꼭 그랬다. 1980년 5월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김대중은 천신만고 끝에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김대중은 책을 좋아했다. 그는 감형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희망이었다. 다른 독재 체제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꿈꿨던 자들은 어떻게 시련을 견뎌냈을까? 김대중이 처음 요구한 책 목록, 슐레진저의 『암 병동』과 “기타 신앙 관계 체험 서적(특히 공산권에서)” 등은 그러한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한 책들이었다. 그런데 여기 사뭇 이질적인 책이 두 권 포함되어 있었다. “갈브레이드, 불확실성의 시대, 경제

학과 공공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다. 김대중이 두 달 뒤 요구한 두 번째 책 목록에도, 그리고 그의 옥중서신에 기록된 모든 “다음 책들을 넣어 주시오”에서도, 미국 경제학자 갤브레이스의 이름은 어김없이 등장한다. 다정한 아버지로서 보낸 편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갤브레이스의 저작들은 “일생을 두고 재독, 삼독할 책이니 각기 자기 장서로 준비하여라.” 감옥에 갇힌 지 딱 한 해가 지난 1981년 5월, 김대중은 세 아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김대중 1981-1982).

냉전 시기 아시아의 소위 자유 진영에서 미국은 두 얼굴의 존재였다. 그곳에서 미국은 너무도 자주, 그리고 너무도 쉽게 반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버렸다. 그럼에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많은 아시아 사람에게 미국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비록 기만적이었고, 때로는 충격적인 배신을 했지만, 그래도 미국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들렸고, 때가 되면 선거가 열렸으며,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본모습을 되찾으리라는 희망이 있었다. 1980년 한국에서 미국은 학살을 외면하고 또다시 독재를 용인했으나, 그래도 김대중은 이 실망스러운 모습과는 다른 미국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얼굴은 군사 독재의 사법 살인에서 겨우 살아난 운동가에게 희망을 줄 정도로 민주적이었음과 동시에, 신군부 감옥에 갇힌 무기정역수가 반입해도 될 정도로 안전한, 그러니까 철저하게 반공적인 대안이었다. 갤브레이스는 그러한 대안을 대변하는 미국인 가운데 하나였다. 그 대안은 그의 옆집 남자 술레진저가 말했던 “생동하는 중심”과 다르지 않았다. 다시 말해, 김대중이 갤브레이스에게 발견했던 미국의 얼굴은 좌파와 우파 모든 종류의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한편, 덜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자본주의를 개혁해 나가기 위한 반공 좌파의 대안이었다.

갤브레이스와 미국 반공 좌파는 그 대안을 제3세력(Third Force)이라고 불렀다. 갤브레이스가 이 대안의 대변자가 되는 과정은 흥미롭다. “비경제학자를 위한 미국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별명이 보여주듯이, 그는 재치와 풍자, 유려한 말솜씨를 자랑했던 스타 경제학자였지만, 정작 경제학적 지식은 하버드 교수라는 직함이 무색하게도 아마추어 수준을 넘지 못했다. 1908년 캐나다 온타리오 시골 마을에서 나고 자란 갤브레이스는 지역 농업대학에서 축산학을 전공한 뒤, UC 버클리에서 농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프린스턴 등 명문대학에서 강의하면서 뭔가 그럴싸한 배경의 필요성을 느꼈

다. 이에 세계적으로 케인스주의가 한창 유행하던 1938년,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로부터 직접 배우겠다는 야심을 품고 영국 케임브리지로 떠났다. 안타깝게도 케인스는 하필 그때 고질적인 심장병이 터져 그곳에 없었다. 할 일이 없어진 깬블레이스는 당시 영국에 와 있던 구스타브 카셀(Gustave Cassel)이나 군나르 뮈르달(Gunnar Myrdal) 등 스웨덴 출신 진보적 경제학자들과 자주 만나서 놀았다. “사회적 케인스주의자(social Keynesian)”로 불렸던 이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케인스의 재정 정책을 경제 계획과 완전 고용, 복지국가 건설 등 진보적 의제를 위한 도구로 재해석했다(Galbraith 1981, 80-88; Weir & Skocpol 1983).

스톡홀름학과 사회적 케인스주의자들의 이론은 스웨덴 사회민주당의 손을 통해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모델, 당대 표현으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을 개척했고, 이는 다시 서유럽 진보 인사들에게 거대한 영감을 주었다. 냉전이 시작되던 1940년대 중반, 이들은 착취적인 미국 자본주의와 억압적인 소련 공산주의 모두를 거부하고 유럽 주도로 사회민주주의적 “제3세력”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대표적인 세력이 영국 노동당이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노동당 좌파의 거물 나이 베반(Aneurin “Nye” Bevan)은 종전 후 유럽이 미소 양강의 영향에서 벗어나 제3의 세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기적인 미국식 자본주의는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머리를 아프게(headache)” 했지만, 잔인하고 폭압적인 소련식 공산주의는 그들의 “가슴을 아프게(heartache)” 하는 체제였다. 대신 유럽은 각국의 노동당과 사민당 주도로 스웨덴의 선례를 따라 산업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었다. 결국, 전후 유럽에서 제3세력이란 냉전 질서의 밖에 우뚝 서게 될 “더 크고, 더 좋은 스칸디나비아”를 위한 전망이었다(김일년 2021).

유럽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내세운 제3세력의 전망은 대륙과 바다 두 방향으로 뻗어나갔다.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 중국에서는 내전이 한창이었다. 부패한 국민당과 잔인한 공산당 사이에 존재했던 작은 공간에서 한 무리의 민주적 지식인들이 “제3세력” 운동을 시작했다. 군사력도 없었거니와 단일대오의 정당도 만들지 못했다. 그렇지만 내전 말기 중국의 제3세력 운동은 활기를 띠었다. 한 역사가의 표현처럼, 그것은 중국 자유주의 “최후의 절창”이었다(左玉河 2008). 국민당과 공산당의 좌우파 독재를 비판하고, 민주적 제

3세력을 염원하는 출판물이 쏟아졌다.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 쓴 수준 높은 글이었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 널리 읽히지 못했다. 대략 80퍼센트가 문맹이었으니 대개는 못 읽었고, 나머지 20퍼센트 중 상당수는 더 쉽고 더 재미있는 공산당 선전물을 읽었다. 그런데 읽는 사람이 있었다. 외국인이거나 외국과 관계된 사람이거나 외국물을 먹은 사람이었다. 중국 제3세력 명사의 면면이 딱 그랬다. 후쓰(胡適)는 컬럼비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존 듀이(John Dewey)의 제자였고, 뤼룽지(罗隆基)는 미국 유학파에 런던정경대(LSE) 박사였으며, 장둥쑤(张东荪)은 칸트, 버트런드 러셀, 앙리 베르그송의 전공자였고, 추안핑(储安平)은 독일과 영국 유학 중 특파원을 지낸 언론인이었다(Jeans, ed. 1992; Kim 2020).

실제로 중국 제3세력의 대표작은 외국 독자, 특히 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로 집필된 일종의 자기소개서였다. 독일 유학파 철학자 장준마이(张君勱), 일명 카슨 창(Carsun Chang)은 공산중국이 수립된 이후 망설임 없이 대륙을 떠났다. 하지만 장제스 잔당을 따라 타이완으로 들어가는 것은 망설였다. 두 전체주의 사이에서 길을 잃은 그는 인도로 갔다. 그곳에서 『중국의 제3세력(The Third Force in China)』을 집필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다. “미국 친구들”에게 “언젠가 미래를 위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준비하는 우리의 과업에 동참해 달라”고 설득하는 것이었다. 이때 그는 미국 냉전 자유주의의 양심에 호소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당 정권은 “헌정 질서를 지속해서 위반하고 무시했다.” 따라서 타이완에 세워진 “보수적 유형의 전체주의”는 미국의 친구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렇다고 대륙의 “급진적 유형의 전체주의”가 대안이 될 리는 만무했다. 공산당은 “사회혁명”을 내세우고 있지만, 많은 중국인은 여전히 소련의 하수인인 “공산당 제국주의”로부터 자유를 염원하고 있었다. 결국 대안은 오직 제3세력뿐이었다. “중국에서 제3세력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장준마이가 외쳤다. 전체적으로 훌륭한 이 책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대목이었다(Chang 1952, 12-23).

그래도 미국의 반공 좌파 세력은 태평양 너머로부터 들려온 이 간절한呼籲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기본적으로 이는 유럽으로부터 제3세력이라는 개념이 대서양을 건너와 이미 그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겔브레이크스는 이 개념의 수입상이었고, 그가 창립을 도왔던 ADA는 미국에서

그 개념을 퍼뜨리는 네트워크였다. 1949년, ADA는 비슷한 성향의 노동 및 인권 단체들과 연대해 “제3세력 연락사무소(Third Force-liaison office)”를 열었다. 목적은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제3세력 그룹을 연결하는 조직망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조직망을 통해 ADA는 미국인들 사이에 “제3세력 연대 의식”을 고양하고, “의회 관련 위원회들”을 압박해 아시아의 민주주의 세력을 지원할 예정이었다(ADA Records, reel 34, no. 67). 중국 내전이 끝났을 때, 미국의 반공 좌파는 그들의 원칙, 즉 좌우파 모든 전체주의에 대한 거부와 자본주의의 개혁이라는 냉전 자유주의의 양대 원칙을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은 이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은 한때 미국에 그러한 원칙이 존재했으며,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염원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희망을 걸었고, 꽤 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신군부 감옥에서 느껴질 정도로 살아 있었다는 사실이다(Brooks 2015).

IV. 두 개의 중국

미국 외교가의 일상은 국무부와 각국 미 대사관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다. 대화가 필요한 이유는 국무부와 대사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무부는 백악관 바로 옆 안전하고 지루한 포기바텀(Foggy Bottom)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국무부의 고위급 정책 결정권자들은 틈만 나면 그곳을 벗어나 인근의 안전하면서도 흥이 넘치는 동네 조지타운에서 백악관이나 CIA, 국방부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딘 애치슨(Dean Acheson)과 조지 케넌(George Kennan) 등 냉전의 설계자들이 열었던 조지타운 카테일파티는 특히 유명했다. 이들은 각자 취향에 맞는 술을 한 잔씩 들고 세계를 경영했다. 지루하든 흥이 넘치든 안전한 장소에 있었으니, 냉전은 차가운 전쟁이 아니라 차가운 평화로 보였다. 그러나 각국 대사관에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워싱턴에서 숫자로 보이던 것, 이를테면 전사자나 성장률 따위가 현지에서는 피와 살점이었고, 국무부 보고서의 “특이 사항 없음” 페이지에는 각국 대사관에서 올라온 흥분과 공포와 좌절이 생략되어 있었다. 카테일파티에서 그저 ‘말 잘 듣는 녀석’과 ‘말 안 듣는 놈’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해당 지역 외

교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물이었다. 심지어 냉전과 탈식민의 시기적 중첩을 고려할 때 그들은 전설적인 독립투사에 국가의 창건자인 경우도 드물지 않았다(Thomas 1986; Gaddis, 1989).

냉전 시기 미국 민주당 정부는 진보 성향 지식인을 대사로 파견하는 경향을 보였다.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둘 다 대단히 현명한 행보였다. 첫 번째는 정권교체 직후 곧바로 그들을 대사로 임명하는 경우였다. 야당에 있어 지식인은 매우 유용한 존재다.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앞장서서 여당을 공격했으며, 멋진 말과 글로 민주당의 집권 이유를 대중에게 설명했다. 설령 그 이유가 현실과는 다를지라도 당으로서만 가만히 있으면 되고,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어디까지나 개인의 생각일 뿐이라고 선을 그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집권 후 지식인은 골치 아픈 존재가 된다. 시키지도 않은 조언을 자주 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잔소리를 해댔다. 이때 그들을 다른 나라로 멀리 보내고 나면 워싱턴의 근무 환경은 한결 쾌적해진다. 두 번째는 정권 후반부에 대사를 파견하는 경우이다. 미국에서 대선은 의회 및 주 선거와 함께 열린다. 대부분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다른 선거에서도 선전한다. 이 과정에서 지식인도 간혹 당선된다. 이들 중 상당수는 당선 후에도 지식인 티를 벗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마구 하므로 다음 선거에서 잘 떨어진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간 노고를 위로하면서 대사 자리를 하나 만들어 낙선자의 재기를 위한 이력서에 한 줄 보태준다.

인도 대사를 두 번 지낸 체스터 볼즈는 두 경우 모두에 해당했다. 그의 첫 번째 인도행은 1951년 트루먼 대통령이 임기 말에 보내준 것이었다. 1901년 코네티컷에서 태어나 예일대를 졸업한 볼즈는 경제 대공황 중에 광고회사를 차려 돈을 많이 벌었다. 2차 대전 중에는 물가통제국(OPA)을 잘 이끌었고, 이에 트루먼의 눈에 들어 UN 미국 대표단으로 활약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볼즈는 1948년 코네티컷 주지사에 당선되었다. 주지사 재임 중 공교육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 공공주택 건설 등 코네티컷의 “작은 뉴딜”을 이끌었다. 이때부터 그는 미네소타 상원의원 휴버트 험프리(Hubert Humphrey)와 함께 대선 때마다 진보 진영이 습관적으로 거론하는 후보 목록에 들어갔다. 그러던 와중에 중국이 공산화되었다. 볼즈는 신생 중화인민 공화국의 UN 가입을 찬성했다. 소련이 상임이사국이고,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심지어 우크라이나조차 회원으로 있는 국제 조직에 공산중국만 들

어오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고 다녔다. 매 카시즘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이었다. 그는 재선에서 매서운 색깔론 공세에 시달려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트루먼이 그를 백악관으로 불러 가고 싶은 대사관을 하나 고르라고 했다. 그의 선택에 따라 볼즈는 인도로 갔다(김일년 2023).

볼즈는 향후 미국 외교의 진정한 도전은 아시아로부터 올 것이며, 이때 인도와의 관계는 그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가 되리라고 확신했다. 주위를 둘러보니 이 과업을 수행할 책임자가 없어 보였다. 트루먼 정부의 외교 전략가들은 죄다 유럽을 우선시하는 대서양주의자였고, 대개 볼즈를 업신여겼다. 특히 국무장관 딘 애치슨은 그를 유독 싫어했다. 조지타운 캠페일파티에서 애치슨이 볼즈는 사고방식부터가 “마치 전족이라도 한 듯 뼈딱하다”고 욕을 하면, 조지 캐넌이 그래도 친구라고 나서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국제정치의 현실에 맞지 않는 어리숙한 이상주의자라고 편을 들어주었다(Beisner 2006, 504-511). 반대로 볼즈의 관점에서는 고위급 대외정책 담당자들이 전부 안전한 워싱턴에 앉아 대서양 건너 유럽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아시아 정책이 망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중국 공산화와 한국 전쟁 이후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아하니 앞으로 저 대서양주의자들이 감당하기 힘든 사고가 태평양 맞은편에서 계속 터질 것 같았다. 그렇게 되면 아시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가 필요해질 터였다. 그 인재가 바로 자신이었다. 잘만 하면 차기 민주당 정부에서 국무장관이 될지도 몰랐다. 가뜩이나 속이 잘 보이는 인물이었던 볼즈는 이 야심을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Schaffer 1993, 137-140).

뉴델리 미국 대사관에 도착하자 중국 문제가 새삼 더욱 중요하게 다가왔다. 중국이 공산화된 지 꼭 두 해가 흐른 시점이었다. 네루(Jawaharlal Nehru) 수상부터 언론인과 외교관, 지식인들까지 온통 중국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그 핵심에 두려움이 있었다. 중국에 호의적인 사람들은 공산당이 저 거대한 영토와 인구, 자원을 바탕으로 역동적인 사회혁명을 추진하고 있으니, 인도도 강한 이웃과 대립하는 대신 친하게 지내면서 이것저것 배우자고 주장했다. 중국은 아시아의 최강대국이니 그에 걸맞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논리였다. 중국을 싫어하는 인도인들은 그들대로 이제 공산정권이 대륙을 통일했으니, 한나라 이래 중국이 늘 하던 것처럼 밖으로 탐욕의 눈길

을 돌릴 것이라고 경계했다. 중국은 아시아의 제국이니 괜한 시빗거리를 주지 말고 조용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갑론을박이 많았으나 어쨌든 결론은 하나였다. 중국과 절대로 싸우면 안 된다. 그것은 인도가 자멸하는 길이었다. 그리고 이 결론은 애치슨 등이 각테일파티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였다. 중국 공산화 이후 그들은 일본부터 남한과 타이완, 태국, 필리핀을 거쳐 인도를 묶는 반공의 포위망을 결성해 중국을 압박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인도 대사관에서 보기에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김일년 2022).

1953년 아이젠하워(Dwight Eisenhower)의 공화당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인도에서 귀국한 볼즈는 중국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설파하기 시작했다. 흔히 “두 중국 정책”으로 알려진 이 접근법은 볼즈 자신의 표현처럼 “두 국가(two nations)” 해법에 가까웠다. 말 그대로 이제부터 공산중국을 중국으로 인정하는 대신 타이완은 별개의 독립국으로 만들자는 주장이었다.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타이완을 논외로 한다면, 국제 여론은 전반적으로 이 해결책을 지지했다. 특히 중국 이웃 나라들에 두 국가 해법은 불감청고소원이었다. 당시 미국에는 중국 공산화가 낳은 트라우마 위에 매카시즘 광풍이 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산중국을 승인하라고 하는 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다. 그럼에도 처음에는 인도가,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시간이 흐른 뒤에는 일본까지 조심스럽게 그러한 제안을 전달했다. 심지어 소련조차 중국에 관한 두 국가 해법을 받을 용의가 있음을 내비쳤다. 저마다 셈법이야 달랐으나 이들 모두는 전쟁만큼은 피하고 싶었다. 볼즈의 말을 빌리자면, 두 국가 해법은 장제스의 “터무니없는(silly)” 권토중래의 망상과 마오쩌둥의 “꼭 터무니없지만은 않을” 천하통일의 야욕으로부터 아시아의 안정과 세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Bowles 1971, 463).

볼즈는 미국 반공 좌파의 대표 정치인이었고, 따라서 그가 제안한 두 중국 정책은 전체주의 반대와 자본주의 개혁이라는 냉전 자유주의의 양대 원칙을 반영했다. 이는 곧 타이완을 중국 제3세력을 위한 실험실로 만드는 작업을 의미했다. 다시 말해, 타이완을 독립국으로 만드는 것이 두 국가 해법의 시작이라면, 그것의 완결은 그곳에서 국민당 일당독재를 끝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세우는 것이었다. 당시 타이완 정치는 중국 공산화 이후 장제스를 따라 섬으로 건너온 소수의 대륙 출신 망명자들(外省人)이 독점했다. 거

의 천만에 가까운 기존 타이완 주민(本省人)은 정치적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등 시민 취급을 받았다. 볼즈는 인도 카스트 제도와 남아프리카 아파르트헤이트의 강경한 비판자였다. 특히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의 친구이자 전국 최대 민권운동 조직 NAACP 상임이사였던 그의 눈에 타이완의 상황은 미국 남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미국이 진심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맹주가 되고자 한다면 국내에서 흑인 민권을 완수하는 한편 타이완에서 민주주의를 압박해야 할 것이었다.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타이완은 토지 개혁과 노동권 보호, 즉 사회혁명을 전개해 나갈 것이었다. 이렇듯 볼즈에게 두 중국 정책은 자유민주주의의 논리적 귀결이었다(Bowles 1960).

V. 결론

그리고 1960년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선 막바지에 닉슨의 공격 대상이 된 슐레진저, 갤브레이스, 볼즈 삼인방은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며 밤 새워 개표를 지켜봤다. 아슬아슬한 승리였다. 슐레진저는 이튿날 아침 선거 결과가 확정되자마자 “슐레진저, 갤브레이스, 볼즈의 정당”을 대표하여 케네디에게 의기양양한 전보를 보냈다. “그대에게 민주당을 넘겨 드리기 위해 우리가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갤브레이스는 닉슨의 색깔론을 조롱했다. 슐레진저, 갤브레이스, 볼즈가 무슨 “레닌, 스탈린, 마오쩌둥이라도 되는 것처럼 나팔을 불고(trumpet)” 다니더니 그러고도 졌다. 볼즈는 드디어 그의 꿈의 자리에 다가섰다. 대선의 열기가 아직 남아 있던 11월 말의 어느 날, 당선자 케네디는 볼즈를 불러서는 “만약 차기 정부 국무장관이 된다면 조직을 어떻게 짤 생각인지” 물었다. 들뜬 볼즈는 우선 일 잘하고 말도 잘 듣는 딘 러스크(Dean Rusk)를 국무차관으로 발탁할 작정이라고 답했다. 닉슨의 말처럼 케네디의 당선은 “슐레진저, 갤브레이스, 볼즈의 정당”의 집권으로 느껴질 법했다. 이와 함께 미국 반공 좌파 진영은 그들이 줄곧 옹호했던 냉전 자유주의의 원칙이 마침내 신임 민주당 정부에서 빛을 보게 되리라 기대했다(Holt, ed. 2017; Galbraith 1981, 170; Bowles 1971, 353-354).

홍분의 순간은 금방 지나갔다. 케네디는 민주당이 자신의 정당임을 분명히 했다. 볼즈를 만난 지 일주일 후 그는 딘 러스크를 국무장관에, 볼즈를 국무차관에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볼즈로서는 무척 자존심이 상하는 처사였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기특했고, 앞으로는 귀찮아질 지식인들을 쫓아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깬브레이스에게는 인도 대사를 제안했다. 눈치 빠른 그는 몇 마디 비아냥거렸지만, 그래도 제안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인도로 떠났다. 술레진저에게는 브라질 대사 자리가 돌아갔다. 마음이 상한 그는 노골적으로 실망한 티를 냈다. 측근 몇 사람이 당선자에게 술레진저의 멋진 문장을 상기시키며 백악관에 한 자리 줘서 궁정사관(court historian)으로 데리고 있자고 조언했다. 앞으로 이런저런 간섭을 하겠지만 대통령이 참을성을 발휘해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릴 수만 있다면 감당 못할 문제는 아닐 것이었다. 참을성이 있던 케네디는 이 조언을 잘 따랐다. 진정 감당 못할 문제는 볼즈였다. 이 “끝없는 잔소리꾼”은 중국부터 쿠바, 베트남까지 사사건건 입바른 소리를 했다. 참을성이 바닥난 케네디는 한 해도 채 지나기 전에 볼즈를 국무차관에서 해임한 뒤 오직 그만을 위해 특별히 신설한 “대통령 특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순회 대사”로 임명해 서둘러 해외로 내보냈다(Dallek 2013).

그럼에도 그들의 주장은 오래 살아남았다. 미국 반공 좌파는 케네디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뚜렷한 성과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그러나 내부 사정이야 어떠했던 간에 케네디 시대 민주당은 “술레진저, 깬브레이스, 볼즈의 정당”처럼 보였고, 그래서 원래 별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이 세 사람의 주장을 한번씩은 돌아봤다. 세간의 주목이 커지자 그들 주장에도 조금씩 탄력이 붙었다. 그 주장 중 제3세력에 관한 것은 케네디 재임기 유럽과 아시아 좌파 정당과의 관계 개선(Opening to the Left)으로 빛을 봤고, 두 개의 중국 정책 역시 후임 린든 존슨 대통령(Lyndon B. Johnson) 시기에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모든 외교 사안을 다 잠식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 이후 다음 대통령 닉슨이 공산중국과 전격적으로 손을 잡으면서 두 중국 정책은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한때 국민당 독재와 잘 지냈던 사람이 공산당 독재와 잘못 지낼 이유도 없었다. 자유주의자들은 달랐다. 그들은 반공이기 때문에 우파 독재도 용인할 수 없었고, 냉전 승리를 위해서라도 자본주의를 개혁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것이

냉전 시기 자유민주주의가 낳은 두 개의 국가론, 두 중국 정책이 지닌 함의이다. 그리고 그 함의는 오늘날 휴전선에서, 요르단강에서,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 한번쯤 돌아볼 가치가 있다.

김일년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OSU)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사를 중심으로 현대 서양의 정치사와 외교사, 지성사를 연구하고 있다. *Diplomatic History*, *Modern Intellectual History*, 『서양사론』, 『역사비평』, 『역사학보』 등에 글을 썼다. 현재 이화여대 사학과 조교수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참고문헌

- ADA. 1949. "Self-Description of Franklin Wallick on Asian Political Situation," memorandum to the ADA, June 9, 1949; "Asia and U.S. Policy," 5-7, Oct. 5, 1949, reel 34, no. 67, Americans for Democratic Action Records, Wisconsin History Society.
- Alpers, Benjamin L. 2003. *Dictators, Democracy, and American Public Culture: Envisioning the Totalitarian Enemy, 1920s-1950s*.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Beisner, Robert L. 2006. *Dean Acheson: A Life in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owles, Chester. 1971. *Promises to Keep: My Years in Public Life*. New York: Harper & Row.
- Bowles, 1960. "The 'China Problem' Reconsidered" *Foreign Affairs* 38(1): 476-486.
- Brooks, Charlotte. 2015. *Between Mao and McCarthy: Chinese American Politics in the Cold War Year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5.
- Bryant, Nick. 2006. *The Bystander: John F. Kennedy and the Struggle for Black Equality*. New York: Basic Books.
- Busch, Andrew E. 2012. *Truman's Triumphs: The 1948 Election and the Making of Postwar America*.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Chamberlin, Paul Thomas 저. 김남섭 역. 2023(원서 2018). 『아시아 1945-1990: 서구의 번영 아래 전쟁과 폭력으로 물든』 파주: 이테아.
- Chang, Carsun. 1952. *The Third Force in China*. New York: Bookman Associates.
- Crespino, Joseph. 2012. *Strom Thurmond's America*. New York: Hill & Wang.
- Dallek, Robert. 2013. *Camelot's Court: Inside the Kennedy White House*. New York: Harper.
- Devine, Thomas. 2013. *Henry Wallace's 1948 Presidential Campaign and*

- the Future of Postwar Liberalism*. Chapel Hill: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airbank, John K. et al. 1949. *Next Step in Asi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addis, John Lewis. 1989. *The Long Peace: Inquiries Into the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albraith, John Kenneth. 1981. *A Life of Our Times*. Boston: Houghton Mifflin.
- Gellman, Irwin F. 2022. *Campaign of the Century: Kennedy, Nixon, and the Election of 1960*.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Gillon, Steven M. 1987. *Politics and Vision: The ADA and American Liberalism, 1947-198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 Gleason, Abbott. 1995. *Totalitarianism: The Inner History of the Cold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olt, Richard. 2017. *The Selected Letters of John Kenneth Galbraith*.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 Jeans, Roger. ed. 1992. *Roads Not Taken: The Struggle of Opposition Parties in Twentieth-Century China*. Boulder: Westview Press, 1992.
- Kazin, Michael. 2017. "An Idol and Once a President: John F. Kennedy at 100," *Journal of American History* 104(3): 707-26.
- Kim, Ilnyun. 2020. "The Vital Center for United States-China Relations in the 1950s," *Diplomatic History* 44(4): 609-35.
- Moyn, Samuel. 2023. *Liberalism against Itself: Cold War Intellectuals and the Making of Our Tim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Oshinsky, David. 1983. *A Conspiracy So Immense: The World of Joe McCart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chaffer, Howard B. 1993. *Chester Bowles: New Dealer in the Cold Wa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chlesinger Jr, Arthur. 2009(초판 1949). *The Vital Center*. reprint,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 Storrs, Landon R. Y. 2012. *The Second Red Scare and the Unmaking of*

- the New Deal Lef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homas, Evan. 1986. *The Wise Men: Six Friends and the World They Made*. New York: Simon & Schuster.
- Weaver, Jr., Warren. 1960. "Nixon Renews Bid for South's Vote," *New York Times*, Oct. 4, 1960, 1.
- Weir Margaret M. & Theda Skocpol. 1983. "State Structures and Social Keynesianism,"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Sociology* 24: 4-29.
- Westad, Odd Arne. 2017. *The Cold War: A World History*. New York: Basic Books.
- 김대중, "옥중서신" 7신(1981년 2월 21일), 9신(4월 22일), 10신(5월 22일), 13신(9월 23일), 18신(1982년 1월 29일).
- 김일년. 2021. "대서양 좌측통행: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민주당 진보파와 영국 노동당 좌파는 어디서 만났는가?" 『영국연구』 45호: 215-246.
- 김일년. 2022. "오래된 미래: 미중 냉전과 인도-태평양의 형성" 『역사학보』 253호: 493-527.
- 김일년. 2023. "두 개의 중국의 지적 기원: 냉전 초기 한 진보적 미국인이 인도에서 깨달은 것" 『역사비평』 145호: 84-110.
- 左玉河. 2008. "最后的绝唱: 1948年前后关于自由主义的讨论" 『四川大学学报』 157(4).

Abstract

America and Two Chinas: Liberals' Vision of a Two State Solution in the Early Cold War Era

Kim, Ilnyun*

This article examines the American origins of the notion of two Chinas by investigating the politic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Cold War liberalism the years immediately after World War II. It approaches this narrative through the ideas and activities of three non-communist left liberals of the American Democratic Party: Arthur Schlesinger Jr., John Kenneth Galbraith, and Chester Bowles. These and other progressive liberals of early postwar America reinterpreted the ideology of Cold War liberalism as a tool to oppose not only communism but also all forms of totalitarianism-inclu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With this reinterpretation, they criticized the U.S. Cold War policy in East Asia and supported grassroots social revolutions of the region. In so doing, they articulated their version of two state solution for the China question, which made the liberals possible avoid both the Communist proletarian dictatorship and Nationalist rightwing despotism. This early Cold War era's liberal solution made a long shadow in the history of America-China relations.

Key Words: Liberalism, democracy, two Chinas, Schlesinger, Galbraith, Bowles, anti-communism

논문투고일: 2024. 05. 04.

논문심사일: 2024. 05. 17.

게재확정일: 2024. 05. 24.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History, Ewha Womans University. ininkim@ewha.ac.kr